



의사의 삼과 총

김종주/반포신경정신과의원 · 라깡과 현대정신 분석학회 회장

요즘 직업이 흔들리고 있다. 아들은 의학이 싫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고 떠나 갔다. 의대를 겨우 4년밖에 다니지 않은 그 녀석이 내뱉은, 이젠 의사도 별 볼 일 없다는, 그 한 마디가 참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.

30년 동안 의대교수, 교육병원의 과장, 개원의를 거치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제너를대로 뭔가를 들고 배웠을테지. 그래도 녀석은 아직도 봐둬야 할 것이 많은데 너무 성급히 떠나버렸다.

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.

본과 1학년 때의 일이다. 토요일이면 으레 그렇듯이 도서관에서 쫓겨나 막걸리 몇 사발 들이키고 밤 11시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한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이끌었다. 우리는 셋이서 완행열차를 탔다. 몇 시간 흔들리다가 조치원 역에서 내렸다.

읍내를 빠져나가 캄캄한 밤을 한 십리쯤 걸었다. 깜짝 놀라시는 어머님께 미안했지만 밥 한 그릇 똑딱 해치우고 늦잠을 잤다.

새벽녘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지 풀냄새가 코 끝에 상큼하다.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병원으로 나가려 하자 어머님께서 말리셨다.

아버님은 출타 중. 일요일인데 어딜 가셨을까? 친구가 빙그레 웃더니, “물꼬를 보러 가셨겠지.” 신기해진 우리는 그 친구에게 눈에 가보자고 즐랐다.

푸른 눈 가운데 하얀 점들이 눈에 들어온다. 황새였다. 그 하얀 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.

밀집모자를 눌러쓰고 오른쪽 어깨에 삽자루를 둘러맨 아버님이셨다. 삼과 원장님. 그 모습은 완전한 농사꾼이셨다. 그 의원은 면소재지에 있었다. 그 마을의 어느 젊은이가 충수돌기염에 걸렸다.

먹을 쌀은커녕 보릿쌀도 다 떨어져나간 오뉴월 보릿고개에 하필이면 “맹장염”이. 원장님은 수술비를 가을철 농사일 품삯으로 대체하셨다.

그러나 방귀가 나와도 죽 끓여먹을 쌀이 없었던 뻔한 일. 사모님은 원장님 몰래 그 젊은이 집에 쌀 한 말을 가져다주셨다는 일화다.

본과 2학년. 참으로 많은 과목을 눈이 핑핑 돌 정도로 해치워야 하는 고달픈 시절이다. 입주과의라는 아르바이트도 못할 정도였다.

그때의 고달픔을 기억하신 어느 대선배님께서 그 2학년한테 장학금을 제의하셨단다.

전국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전액 내주셨다. 찾아봐야지.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인천엘 갔다.

신흥동 골목에 자리잡은 이층집이다. 일층은 외래고 이층은 입원실이지만 항상 비어있다. 방학 때에는 며칠씩 그 입원실에 머물곤 했다.

그런 어느날 사냥을 가지신다. 공기총에 흰 고무신! 택시를 잡아타고 소금밭 곁에 등성등성 남아 있는 숲속으로 사모님과 셋이서 떠났다.

몇 시간 동안 공기총을 쏴가며 해냈지만 수확은 썰렁 몇 점뿐.

원장님께서선 고향압을 앓아 그저 걷는 놀이를 즐기실 뿐이다. 12시가 못됐는데 점심을 즐라대신다.

사모님께서 소나무 사이 잔디밭에 푸짐한 김밥을 펼쳐 놓고 기도를 올리고. 원장님께서 젓가락을 들자 사모님께서, “당신은 왜 살우?” “다 알잖우.”

그래도 김군 있는 데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요구하신다. 겸연쩍게 웃으시면서, “먹으려고 살지.” 그런 정 박사님께서 제일 비싼 장학금을 마련하신 거란다. 매월 조금씩 저축하신 돈이다. 나는 아직도 그 멋진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.